

文學作品 翻譯의 理論과 實際

— 龍兒의 괴테시 翻譯을 中心으로 —

金 淳 中

<目 次>

| | |
|---------------------------|---------------------|
| 1. 問題의 提起 | 值評價 |
| 2. 文學作品 翻譯의 理論 | 3. 文學作品 翻譯의 實際 |
| 2.1. 文學作品 翻譯의 必要性 | 3.1. 「미논의 노래 · 1」 |
| 2.2. 文學作品 翻譯의 方法과 特 殊性 | 3.2. 「거친들의 장미」 |
| 2.3. 文學作品 翻譯의 可能性과 限界 | 3.3. 「해금타는 늑은이의 노래」 |
| 2.4. 文學作品 翻譯의 分析과 價 | 3.4. 譯詩의 影響 및 成果 |
| | 4. 結 論 |

1. 問題의 提起

오늘날 世界가 점점 좁아지고 人類社會의 協同이 더욱 結實해짐에 따라 學問, 技術, 文化, 交易, 外交, 政治, 軍事 등은 물론 日常生活에 있어서 翻譯은 結實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翻譯은 구체적으로 어느 一定한 장소에서 一定한 시간에 이뤄지는 言語遂行인 바 翻譯者의 言語能力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翻譯이라는 作業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W. Humboldt 는 “翻譯이란 불가능한 과제를 해결하는 무모한 시도다.”라고 까지 言及한 바 있다.

翻譯者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趣向에 따라 自國語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原文에만 너무 충실하려 한다든가 또는 原文을 무시하고 自國語의 特性만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中庸을 택한다는 것이 어렵다기보다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¹⁾

1) Fritz Güttinger, Zielsprache, Theorie und Technik des Übersetzens, Manesse, Zürich, 1963. 脚註 17.

그러므로 翻譯의 質을 판단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문제다. 과연 어떠한 翻譯이 最適의 翻譯이나 또는 成果를 거둔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翻譯文이 주는 效果가 原文이 주는 效果와 같으냐 하는 점에 귀결된다.

本稿는 文學作品 翻譯의 分析和 價值評價라는 문제를 놓고 龍兒가 翻譯한 피테시 3篇²⁾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作業을 위해서는 意味의 正確한 전달을 위한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翻譯이 잘 되고 못된 것은 오직 原文과의 比較에 의해서만 가능한 까닭에 原文을 筆者 자신이 直譯하고 이와 동시에 英譯本³⁾을 택하여 龍兒의 翻譯을 객관적으로 分析하기 위한 補助資料로 삼았다.

Erwin Koppen⁴⁾에 의하면, 文學作品의 翻譯研究는 ① 文學作品 翻譯의 分析和 價值評價 ② 文學作品 翻譯의 理論 ③ 文學作品의 翻譯史로 區分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比較文學界에서 翻譯에 관한 個別的 研究나 翻譯理論에 대한 研究는 다소 이뤄졌으나 翻譯史에 대해서는 심각할 만큼 거의 등한시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와 같이 細分되어 연구되어 올 만한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部分的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인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關心度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多幸한 일이다.

2. 文學作品 翻譯의 理論

2.1. 文學作品 翻譯의 必要性

“翻譯은 原文의 言語 즉 根源言語(Ausgangssprache)의 텍스트를 翻譯될 言語 즉 目標言語(Zielsprache)의 텍스트로 再現하는 作業”⁵⁾이라고 한다면 翻譯이 必要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一次的으로 文學作品이 翻譯됨으로써 外國語 實力의 不足으로 原文

2) 「미논의 노래·1」, 「거침들의 장미」, 「해금타는 늙은이의 노래」.

3) Leonard Forster, The Penguin Book of German Verse, Penguin Books Ltd, New York, 1978.

4) Erwin Koppen,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um, Wiesbaden, 1981, p.128.

5) Albrecht, Linguistik und Übersetzung, Romanische Arbeitshefte. 4, 1973, p.16.

을 읽을 수 없는 讀者들이 그 作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한 걸음 나아가서 文學的 現象이 解明되고 文學의 國際的인 關係를 살필 수 있는 것은 또한 翻譯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翻譯을 통해서 文學作品은 言語와 國家의 境界를 초월하고 시간을 넘어선다. 그리하여 翻譯을 통해서만 주로 세계문학적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세계문학적 연결은 比較文學의 출발점이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翻譯問題의 理解는 他에 대한 理解와 直結된다고 할 수 있다. 對照를 통하여 남을 이해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位置를 分明히 認識할 수 있다는 데 翻譯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翻譯問題는 같은 言語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다른 言語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相互 意思疏通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E. Nida가 열거한 인간의 意思傳達의 基底를 이루는 要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

- 1) 모든 人間의 心的 過程의 類似性
- 2) 人間의 身體的 反射作用의 類似性
- 3) 文化的 經驗의 類似性
- 4) 다른 사람의 行動樣式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人間에게 이러한 要因이 없었다면 翻譯은 커녕 相互 意思疏通마저도 어려웠을 것이다.

2.2. 文學作品 翻譯의 方法과 特殊性

Kloepfer의 文學作品 翻譯理論에 의하면 文學作品의 翻譯은 構造主義言語學과 情報理論에 토대를 둔 非文學的인 텍스트의 翻譯과는 對照的으로 詩學, 解釋學에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個人的인 特性이 부각되어 있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文學作品은 어느 特定の 外國語로 可能的한 한 정확하게 그 言語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再現하는 翻譯의 方法論에 귀결된다.⁷⁾

6) E.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a speic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1964, p. 53.

7) W.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Quelle & Meyer, Heidelberg, 1979, p. 126.

Levý와 같은 학자도 翻譯에서 問題삼은 것은 形態上的 機械的인 保存이 아니라 讀者에 대한 意味上的 問題와 美學的인 價値에 관한 問題였다. 그리하여 文學作品 翻譯에서 그가 重視한 것은 規範이며 이 規範이란 곧 翻譯의 眞實性和 아름다움이다.

翻譯의 方法은 Cicero 이래 現在까지 論亂의 對象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글귀에 충실한/자유로운, 文獻學的인/藝術的인, 外來的인/土着的인 對立 즉 意譯과 直譯의 二律背反的인 모순을 內包하고 있다. 重要한 것은 翻譯者는 原文의 情報 內容에 意圖的으로 注意한다든가 혹은 잘못 본 다든가 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翻譯은 가능하면서도 거의 克服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단어는 각 언어 안에서 약간씩 다른 것을 暗示하고 喚起하기 때문이다.

결국 文學作品 翻譯의 考察은 항상 같은 結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翻譯이 原文의 印象을 가장 가깝게 再生産해 냈는가이다. 그러므로 翻譯을 통한 外國文學 作品의 적절한 수용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가령 作品이 계속해서 翻譯된다고 해도 그것은 分明 言語傳達 目的에서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여러 翻譯者들에 의하여 翻譯된 外國作品들은 하나의 美學的, 知的 倒戰으로 이해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原文으로 된 作品에 대한 外國語의 變化라기보다는 作品의 固有한 類型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Fritz Güttinger에 의하면 翻譯者는 다음과 같은 것을 自問해야 된다.⁹⁾

- ① 作者는 무엇을 말하나?
- ② 作者는 그 표현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나?
- ③ 그는 어떻게 그것을 말하나?
- ④ 그는 왜 그것을 말하나?

翻譯은 逐語的(wörtlich)이지는 않아도 되나 그것은 단어의 의미를 재현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原文이 주는 效果와 目的을 充足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意味에 맞추어 翻譯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어의

8) Erwin Koppen, p. 145.

9) Fritz Güttinger, Der Zweck heiligt die Übersetzung, Zielsprache, p. 165.

의미에만 급급하지 그 文句가 갖는 效果(作用)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翻譯文이 주는 效果가 原文이 주는 效果와 같다면 翻譯으로서 成果를 거둔 것이다.

Breitinger 는 이미 1740 년에 그의 <Kritische Dichtkunst>에서 翻譯者는 原文을 읽고 讀者들이 거기에서 갖는 思考에 대한 想像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翻譯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⁰⁾

그런데 直譯만으로는 確實히 著者가 말하려는 本來의 意圖를 再現할 수 없다. 慣習의으로 쓰이는 것까지 一切를 辭典에서 알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령 다음의 예를 보자.

Was sagt der Verfasser? (Fish und Chips)

Was meint er damit? (das sattsam bekannte, billige Essen)

Wie sagt er es? (mit einem Beispiel)

Warum sagt er es? (um den überdruss mitzuteilen)

이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분위기(Atmosphäre)와 效果(Wirksamkeit)면을 考慮하는 일이다. 성경이 에스키모어로 翻譯되어야 했을 때 에스키모인은 Schaf(양)를 Seehunde(물표범)로 變容시켜야만 했다. 왜냐하면 에스키모인은 Schaf 라는 단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직접적인 影響만을 考慮하고 분위기문제는 度外視한 결과를 招來한 셈이다. 대부분의 翻譯者들은 翻譯의 影響을 考慮하지 않고 쉽게 意譯을 하고 “텍스트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번역자에게는 그러한 것이 許容되지 않는다. 즉 影響問題를 考慮해야 한다. 만일 Luther 가 성경을 獨逸化시켜 翻譯하지 않고 Schleiermacher 가 意味한대로 翻譯했다면, 그의 성경번역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影響問題는 原文이 주는 效果와 翻譯文이 주는 效果가 같으나에 달려 있어서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翻譯者들은 택한다.

① 感情을 상하기 쉬운 단어를 단순히 除去한다. 이 경우 엄격한 語意로 보아 거의 翻譯이 불가능하다.

② 어떤 단어가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거나 혹은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위험성을 예상하고 直譯하거나 翻譯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10) Fritz Güttinger, p. 66.

③ 翻譯者의 나라말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단어로 代置할 수 있다. 가령 “fish and chips”를 “Wurst und Brot”로 할 수 있는 예와 같다.

④ 설명을 追加함으로써 原文의 文句를 保持할 수 있다. 가령 “nichts als Fish und Chips” 또는 “ewig dasselbe, Fish und Chips”로 말이다. 설명은 물론 脚註의 形態를 취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꼭 必要할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간혹 어떤 表現을 一般化시킨다. 즉 “Fish und Chips” 대신 “immer dasselbe billige Essen”으로 말이다. 그것은 즉 사물을 적지 않고 거기에 갖든 動機를 說明만으로 提示하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위의 5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

翻譯의 目的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原文과 같은 影響을 깊이 줄 수 있고 目的에 相應하는 翻譯으로 더무르는 데 있다. 여기서 目的에 相應하는 翻譯의 概念은 단어 의미의 再現 以上の 훨씬 더 많은 무엇을 포괄한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그 範圍를 누구도 一致시킬 수 없는 frei와 getreu 라고 하는 표현을 피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쓰여오고 있는 “가능한 만큼 단어에 充實하고 必要한 만큼 자유롭게(so wortgetreu wie möglich, so frei als nötig) 翻譯하라”는 말은 규칙으로서의 無用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個別的인 경우에 어떤 確고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frei나 getreu 뿐만 아니라 möglich, nötig 등은 뜻대로 설명할 수 있는 탄력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直譯으로 할 것이냐 意譯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異見이 많다. 著者가 文句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는가 하는 것이 翻譯에 그대로 나타나는 가는 確立되게 되어 있다. 다만 成果의 觀點(Gesichtspunkt der Leistung)에 따라 적용되는 規則이나 判斷基準 같은 것이 決定된다. 만약 言語變容의 表現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困境에 빠지고 만다. 이것을 除外하고 그 대신 두 개의 言語로 이야기된 것의 成果를 比較했을 때 비로소 취급할 수 있는 基準 내지 規範이 생긴다. 成果있는 翻譯의 개념(leistungsmässigen Übersetzen)은 근본적인 文句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翻譯이 어떻게 보이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翻譯이 어떤

11) Fritz Güttinger, p. 6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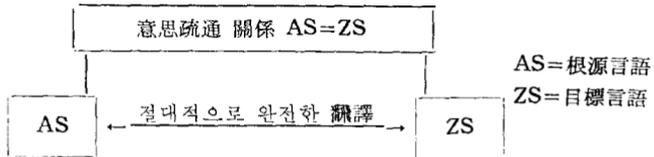
成果를 가져오는가가 중요하다.

翻譯이 原文과 같은 效果를 획득하기 위해서 原文의 文句와 얼마나 멀어지는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어떤 때는 直譯으로 充分하고 어떤 때는 한 개의 단어도 原文과 같지 않은 수가 있다. 따라서 成果있는 翻譯의 개념은 결국 個別的인 경우가 規範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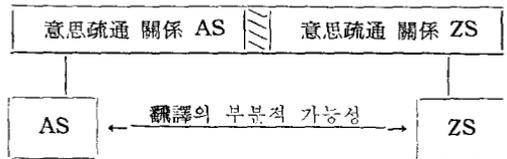
2.3. 文學作品 翻譯의 可能性과 限界

翻譯의 可能性 여부에 대해서는 論亂이 심하나 대체로 文化的 背景에 의해서 規定된 意思疏通 關係에 比例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假定 밑에서 다음과 같이 그 可能性을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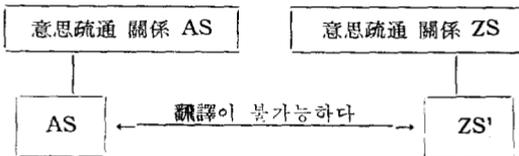
1) 根源言語와 目標言語의 意思疏通 關係가 서로 一致할 때는 絶대적으로 完全한 翻譯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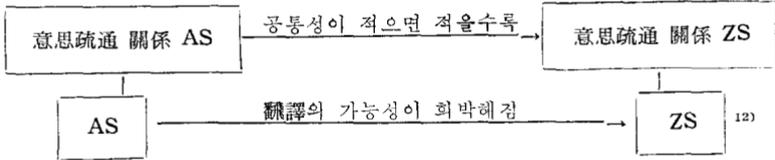
2) 根源言語와 目標言語의 意思疏通 關係가 部分的인 重疊關係에 있을 때는 部分的으로 翻譯이 가능하다.



3) 根源言語와 目標言語의 意思疏通 關係에 전혀 共通性이 없을 때 翻譯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翻譯의 可能性은 根源言語와 目標言語의 意思疏通 關係의 共通性 與何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통하여 翻譯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翻譯의 相對的인 가능성에 도달한다.¹³⁾

1) 서로 다른 文化圈에 속해 있으므로 意思疏通 關係가 서로 다르지만 翻譯(翻譯 意思疏通)을 통해서 實際로 서로 意思疏通을 할 수 있다.

2) 言語는 意思疏通의 機能 및 言語自體를 설명하는 meta 通信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 脚註, 序文, 追記, 註釋 등의 meta 通信의 機能을 통해 翻譯할 수 없는 어휘,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다.

3) 言語는 비록 文化에 의해서 규정된 현상이며 言語 그 자체가 現實性을 파악하는 方法에 影響을 미치지만 認識過程에서 言語의 으로 중재된 思考의 모델은 동시에 反映되고 그럼으로써 또 克服될 수 있다.

4) 個個의 言語는 異質的인 形成體이므로 Weisgerber의 言語觀에 의하면 한 言語 내지 서로 다른 世界觀이 存在하는 셈이다. 이러한 개념은 社會言語學에서 通用되는 同一言語지만 中産階級の 言語와 下層階級の 言語가 각기 서로 다른 世界像을 反映한다는 L. Bernstein의 주장과 一致한다.

5) 同一한 言語가 서로 다른 文化圈 내에서 使用될 수 있고 同一한 言語를 使用하면서 서로 다른 文化圈을 形成할 수도 있다.

6) 翻譯이 原則的으로 불가능하다는 實例로서 文化의 關聯性이 없거나 그 言語共同體 내에서 실제로 생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어휘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들은 텍스트 속에 나타나고 讀者나 聽者, text의 關係가 능동적이고 이해하려고 努力하는 主體의 關係에 있으므로 文脈이나 既存知識에 의하여 점차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텍스트의 翻譯은 相對的이다.

한편 인간이 思考하는 바를 모두 言語로 表現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한 言語로 表現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이외의 다른 自然語로 翻譯할 수 있다는 원칙이 가능하다. 文學的인 텍스트 특히 詩的 表現에서처럼 翻譯

12) W.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kritik, Quelle & Meyer, Heidelberg, 1979. 138 ff.

13) W. Koller, 같은 책, 143 ff.

할 수 없는 表現可能性의 制限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 止揚될 수 있다. 왜냐하면 含縮性있는 言語나 藝術的인 言語의 가치는 脚註나 註釋을 통하여 認識,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言語로서의 表現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詩의 翻譯에서 原文의 音聲이나 리듬의 特性을 解說이나 脚註와 같은 補助手段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는 물론 의문이고 原文의 質的인 變化를 要求하는 翻譯을 翻譯이라고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이것은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었다는 말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翻譯이 理論上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텍스트는 그 수신자가 이미 알고 있는 事前의 知識을 전제로 하여 生成된 것이므로 그 텍스트에는 言語 外的 要素가 內包되어 있다. 따라서 翻譯은 단순한 기호의 解讀이 아니며, 言語 外的 事實을 考慮하지 않고서는 翻譯은 불가능하다.

2.4. 文學作品 翻譯의 分析和 價值評價

文學作品 翻譯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內容의 전달만이 아니라, 美學的 局面이 內包되어 있어서 생긴다. 즉 言語의 表現에는 그 자체 고유한 무게를 유지하면서 言語的 情報을 形成하는 內容이 있다. 그래서 文學作品 翻譯의 分析和 價值評價는 美學, 解釋學에 關係된다. 대부분의 神學者들이 성경번역은 동시에 解釋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Luther의 성경번역이 과연 옳으나 그러나 하는 것은 言語的 問題라기보다 解釋의 問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

하나의 文學作品 翻譯을 分析, 評價하려는 者는 우선 먼저 그 텍스트를 자신이 翻譯해 봐야 한다. 逐語的인 翻譯이 問題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目的은 의미의 精確한 再現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韻律에 關係되어 있는 텍스트는 가능하면 한 句節, 한 句節 翻譯하는 것이 좋고 配語도 그대로 保持하는 것이 좋다. 逐語的인 翻譯은 물론 固有值(Eigenwert)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끔 目的言語의 文法的 혹은 文體的 規範에 위배되어 읽기 不可能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翻譯批評家는 根源言語로 된 텍스트의 精確한 의미에 대하여 다시 確認하고 텍스트 翻譯의 어려움에 대하여 대강의 想像을 할 수 있다. 그는 이제 比較할 수 있는 見本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翻譯批評家는 이 翻譯

을 가지고 目的言語와의 차이점(Abweichungen)을 찾아 내고 그 質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索引해 두고 原文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를 종합해 본다.

다음에는 이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추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은 대부분 律에 환원된다. A. W. Schlegel은 Shakespear의 Monolog의 리듬인상을 정확히 再現하는 데 成功한 사람이다.

그런데 看過할 수 없는 것은 翻譯에 있어서도 一般文學에서와 같은 理論이 成立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어떠한 일정한 讀者를 염두에 두고 翻譯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狀況下에서도 翻譯文의 讀者는 原文의 讀者와 同一할 수 없다. 그리고 翻譯者가 原文의 歷史的 背景을 멀리하거나 讀者를 멀리할수록 그 텍스트는 아주 낮은 것이 되기 쉽다.¹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翻譯者가 時間的 거리를 無視하느냐 혹은 텍스트가 翻譯者와 同時代의 것으로 임혀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翻譯의 言語가 讀者에게 어떤 基準에서 적어도 原文의 歷史性을 가깝게 仲介할 것인가에 대하여 自問해 볼 必要가 있다.

A. W. Schlegel은 中庸의 길을 택했는데, 그의 基本的인 立場은 原文이 그에게 作用한 것과 같이 그의 翻譯이 讀者들에게 作用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3. 文學作品 翻譯의 實際

前項에서 살펴 본 翻譯의 理論에 對比시켜 龍兒의 翻譯詩를 原文과 比較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翻譯이 잘 되고 못된 것은 오직 原文과 比較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本稿에서 考察의 對象이 된 것은 피데시 3편으로 ①「미논의 노래·1」 ②「거친들의 장미」 ③「해금타는 늑은이의 노래」이다.

龍兒는 本來 原文에 充實한 翻譯者였다. 이 3편의 作品翻譯을 살펴 보면 全體的으로 原文의 의미와 크게 벗어나지 않게 翻譯되어 있어서 本稿에서는 特記할 만한 사실만을 간추려 論述해 보고자 한다.

14) Erwin Koppen, p. 136.

3. 1. 「미논의 노래 · 1」

Mignon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en,
 Im dunkeln Laub die Gold-Orangen glühen,
 Ein sanfter Wind vom blauen Himmel weht,
 Die Myrte still und hoch der Lorbeer steht,
 Kennst du es wohl?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n.

Kennst du das Haus? Auf Säulen ruht sein Dach,
 Es glänzt der Saal, es schimmert des Gemach,
 Und Marmorbilder stehn und sehn mich an:
 Was hat man dir, du armes Kind, getan?
 Kennst du es wohl?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Kennst du den Berg und seinen Wolkensteg?
 Das Maultier sucht im Nebel seinen Weg,
 In Höhlen wohnt der Drachen alte Brut,
 Es stürzt der Fels und über ihn die Flut;
 Kennst du ihn wohl? Dahin!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ß uns uns ziehn!

미논의 노래 · 1

아는가 그대 남녘의 나라 시트론 꽃이 피고,
 어둔보 그늘에 금빛 오랑지 빛이 나고,
 다수할바람 푸른하날로 불어나리고,
미르티 고요하며 월계수 꽃이 서있는 나라!
 그대여 이를 아시는가?

그리로, 그리로!

그대와같이, 나의 사랑하움은이여, 가코지워라.

아는가 그대 그집은 짐승아래 둥글은 기둥,
쌀문은 이른거리며 방은 환하게 밝고,

대리석상들 그대로서서 나를 바라다보고,
불상한아이야, 사람이 너를 어쩌나 했느냐? —
그대여 이를 아시는가?

그러로, 그러로!

그대와같이, 나를가려주옵는이여, 가고지워라.

아는가 그대 거기산들과 구름에 잠긴 길들을,
알게가운데 나귀는 길벗어나가고,
몇백년묵은 이무기겨레 굴속에살고,
바의 사오납고 그위로 물넘치가는 —
그대여 이를 아시는가?

그러로, 그러로!

우리의길을, 오! 나의아버지시여, 가고지워라.

먼저 1聯을 검토해 보면 ‘das Land’를 ‘남녘의 나라’로 翻譯해 놓고 있다. 이것은 原文의 文句를 保持하되 설명을 追加함으로써 讀者들에게 뚜렷한 이미지를 喚起시키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die Zitronen’을 시트론으로 한 것은 原文의 단어를 英譯하여 이것의 英語 發音대로 옮겨 썼으며¹⁵⁾ 이와 같이 原文의 단어를 우리말로 直譯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단어 밑에 ~~~~~ 친 것이 특징이다.

구두점은 原文에 充實히 따르고 있으나 例外的인 것은 각 聯의 4,5行이다. 즉 原文의 行間에 맞추어 翻譯했으나, Dahin! Dahin!을 行을 바꾸어 별도로 놓고 구두점도 任意로 조정했다. 이처럼 行을 바꾸어 독립시켜 처리한 理由는 理想의 나라, 憧憬의 나라 그곳을 특히 強調하려는 譯者의 의도가 진하게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며, 구두점은 우리말의 慣習에 따른 듯하다. 즉 단어가 反復되는 경우에 감탄부호는 한 文을 終結하는 구실로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 通例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龍兒가 구두점까지 면밀히 계산에 넣은 것은 效果(Wirkung) 면을 考慮한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die Gold-Orangen’을 ‘금빛 오랑지’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영어로 翻譯을 하여 습한 후 發音나는 대로 쓴 것이 特色이다.

15) 原文의 Zitronen의 正確한 英譯은 Citron(레몬 비슷한 植物, 佛手柑 따위)이 아니고 lemon 이므로, 우리말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英譯하여 놓으려던 것이 龍兒의 意圖였다면 文脈으로 보아 lemon trees로 했어야 옳다.

‘ein sanfter Wind’를 ‘다수한 바람’으로 翻譯하고 있는데 原文의 意味로 본다면 ‘다수한 바람’보다는 ‘부드러운 바람’ 혹은 ‘산들바람’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das Land’를 ‘남녘의 나라’로 하여 原文에 없는 것인데 ‘남녘의’를 追加함으로써 남쪽나라, 남향, 양지바른 나라로 解釋하였으니 ‘바람’도 따스한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die blauen Himmel weht’를 ‘푸른 하늘로 불어나타고’로 했는데, 이것은 前置詞 vom의 解釋이 그릇된 데서 나온 誤譯이 아닐까 생각된다.¹⁶⁾

‘Die Myrte’를 ‘미르테’로 表記했는데, 이것은 翻譯하지 않은 채 獨逸 語詩 發音을 그대로 表記하였고, 한편 ‘Lorbeer’는 ‘월계수’로 하여 우리 말로 完譯하고 있다.

‘Kennst du es wohl’은 1行 첫 句節의 反復인데, 이 部分에 이르러 존칭으로 翻譯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면 그렇게 한 譯者의 意圖는 무엇인가? 전체의 文脈으로 보아 1行에서 4행에 이르는 동안 憧憬과 理想의 나라로 向하는 作者의 마음과 意圖는 점차 高潮되어갈 뿐 아니라 敬虔해지기까지 한다. 이것이 5행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고 싶은 것으로 表現되면서 존칭으로 語法이 바뀌고 있다.

6행에서 譯者는 原文의 字句는 물론 配語까지도 그대로 保持하려는 意圖가 역력히 드러난다.

2聯을 살펴보면 1行에서는 原文의 意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文의 構造를 바꾸었고 이에 따라 原文의 구두점은 無視되고 우리 말에 맞추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Haus’는 본래 목적어이나 翻譯에서 생략되고 그 다음 文의 主語로 意譯되었다.

‘지붕 아래 둥글은 기둥’에서 ‘둥글은’은 임의로 添加한 것인데, 西洋의 경우는 대체로 기둥이 둥근 것이어서 追加한 것 같다.

2行의 ‘Saal’은 ‘살롱’으로 翻譯되어 있는데, 이것은 譯者가 Saal을 英語의 Salon으로 생각하고 한 誤譯이다.¹⁷⁾

3行의 “그대로”도 添加된 것이며 4行에서는 語順을 바꾸어 ‘불상한 이야기’가 語頭に 나와 있다. 이것은 強調하기 위한 뜻도 되고 呼格이 일반적으로 語頭に 나오는 것이 우리말에서 通例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

16) a gentle wind blows from the blue sky 로 또는 것(Leonard Forster, The Penguin books of German Verse, p. 216)이 客觀性있는 翻譯이 될 것이다.

17) Saal은 강당, Salon은 객실, 응접실, 미술관, 사교, 교회의 모임장소의 뜻이므로 차이가 있다.

닐까 한다.

5, 6 行은 1 聯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3 聯을 보면 1 行에 “거기”가 보충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관사 den 을 直譯하기보다 “거기”라고 하는 부사를 넣음으로써 장소를 더욱 明白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가 아닌가 싶다.

2 行 이하는 語順이나 구두점, 기타 語法의 면에서 1, 2 聯에 준하여 翻譯되어 있으므로 特記할 것은 없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논의 노래·1」에서는 몇 군데 枝葉的인 誤譯이 보이고 낯선 外國語의 翻譯 및 表記는 극히 一貫性이 없이 行해지고 있으나 詩翻譯에서 一般的으로 惹起되는 형식의 翻譯의 어려움은 무난히 克服되고 있고 原文의 의미가 充實히 전달되고 있다.

Fritz Güttinger 의 見解처럼 과연 最適의 翻譯은 어떠한 成果를 가져 오느냐에 左右되는 사실 (§ 2. 2. 설명 참조)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3. 2. 「거친들의 장미」

Heidenröslein

Sah ein Knab ein Röslein stehn,
Röslein auf der Heiden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Lief er Schnell, es nah zu sehn,
Sah's mit vielen Freuden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Knabe sprach: Ich breche dich,
Röslein auf der Heiden!
Röslein sprach: Ich stehe dich,
Daß du ewig denkst an mich,
Und ich will's nicht leiden.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n.

Und der wilde Knabe brach
's Röslein auf der Heiden;
Röslein wehrte sich und stach,

Half ihr doch Kein Weh und Ach,
 Mußt' es eben leiden.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n.

거친들의 장미

저아이 보아 장미화를 보았어라
 거친들에 홀로된 장미화를
 가지피어 고읍고 새뚫한양
 가까히 보러 다름질 뛰여갔네
 보고나니 기쁜정 넘치여라
 장미화 장미화 붉은 장미화
 거친들에 붉은 장미화.

아해 팔이 내 너를 꺾을란다
 거친들에 피어난 장미화야
 장미 대답 나는 너를 찌를란다
 네맘에 나물 영영 못잊도록
 나도 그냥 잊진 않을테야
 장미화 장미화 붉은 장미화
 거친들에 붉은 장미화.

그아해는 함부로 손에대어
 들에핀 그장미를 꺾었어라
 장미도 지지않고 찢렸으나
 울어도 소리쳐도 슬테없이
 장미는 활수없이 꺾긴것을
 장미화 장미화 붉은 장미화
 거친들에 붉은 장미화.

1 聯의 1 行 ‘저 아이 보아 장미화를 보았어’는 *sehen* 의 동작을 강조하기 위하여 倒置法을 쓴 것이 原作者의 의도인 바, 譯者는 이것을 다시 우리말식의 表現法을 빌어 原文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즉 “저 아이 좀 보아, (저 아이가) 장미화를 보았네”의 의미다.

2 行의 ‘홀로 된’의 ‘홀로’도 原文에는 없는 부사를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添加한 말이다.

5행의 ‘보고 나니 기쁜 정 넘치어’라는 ‘sah's mit vielen Freuden’와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는 意譯어다. 原文의 의미는 기쁜 마음으로 보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2聯의 1行 ‘아해 말이’와 ‘장미대답’은 詩의 字數를 考慮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판단된다.

3聯의 1行에서는 형용사 *wilde*를 부사 ‘함부로’로 翻譯해 농음으로써 우리말다운 文章을 다듬어 보려는 譯者의 의도가 明白하다.

이 譯詩 전체의 특징은 어미가 ‘~어라, ~네, ~란다, ~대야’ 등으로 끝나고 있는 점인데, 原文의 2聯, 3聯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對話體의 文章으로 엮여져 있어 原文에 가깝되, 우리말답게 翻譯하려는 努力의 한 증거다.

3.3. 「해금타는 늙은이의 노래」

Harfenspieler

Wer nie sein Brat mit Tränen aß,
Wer nie die Kummervollen Nächte.
Auf seinem Bette weinend saß,
Der kennt euch nicht, ihr himmlischen Mächte.

Ihr führt ins Leben uns hinein,
Ihr laßt den Armen schuldig werden,
Dann überlaßt ihr ihn des pein:
Denn alle Schuld rächt Sich auf Erden.

해금타는 늙은이의 노래

눈물에 섞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이눈
괴로운 여러밤을 차리에 일어앉아
느끼는 울음속에 새워보지 못한이눈
하날서 내려온힘아 너의를 모르리라.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 들여오고
불쌍한 사람들을 죄짓게 하더두고
막친내는 괴롭속에 떨어트르나니—
罪는 이생에서 보복을 받는것이니라

우선 題目¹⁸⁾에서 Harfen 를 해금으로 翻譯한 점이 주목된다. 原文의 樂器는 하아프(harp)로서 洋樂器이니 讀者들에게는 낯선 것이므로 이를 우리 固有의 樂器이름으로 代置한 것은 譯者가 効果(Wirkung)면울 깊이 생각한 증거로 보인다. 더구나 Harfenspieler 의 Spieler 를 보통 樂器演奏者로 보아야 하겠으나 이것을 굳이 늙은 이라고 한 것은 면밀히 검토할 必要가 있다. 이 詩에 등장하는 人物은 人生의 쓴 體驗을 맞본 사람이요, 譯者가 처한 시대만 해도 樂器演奏者나 노래부르는 사람은 ‘~쟁이’라 하여 賤視하는 傾向이 있던 터이므로 지체높은 노인보다는 늙은이로 翻譯한 듯하다.

本文의 翻譯을 살펴 보면, 이 역시 原文의 字句에 충실하게 翻譯되었으면서도 翻譯된 느낌이 안 드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눈물에 섞은 빵을 먹어 보지 못한 이는”에서 前置詞 mit 의 解釋과 “먹어 보지 못한”에서 經驗을 나타내는 우리말 特有的 文章을 의미에 맞게 적절히 翻譯해 놓은 것이다.

1 聯의 3 行에서 “auf seinem Bett”의 解釋도 直譯하면 “침대 위에서”라야 되겠지만 우리 나라의 生活構造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자리에”로 意譯해 놓은 점 등이다.

또한 2 聯의 4 行의 “罪는 이생에서 보복을 받는 것이니라”에서 “auf Erden”을 “이생에서”로 解釋한 점이 注目된다. 直譯하면 “지구상에” 혹은 “땅위에서”로 되겠으나 대체로 우리 社會에서는 佛敎의 因果應報를 믿고 행동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翻譯은 讀者들의 이해를 한층 수월케 한 것이다.

3. 4. 譯詩의 影響 및 成果

위의 作品 세 편을 통하여 볼 때 몇 군데 枝葉의인 誤譯이 보이고, 낯선 外國語의 翻譯 및 表記는 一貫性이 없이 行해지고 있으나 詩翻譯에서 一般의으로 惹起되는 形式의 翻譯의 어려움은 무난히 克服되고 있고 原文의 意味가 充實히 전달되고 있다. 前項(§ 2.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ritz Güttinger 의 見解에 따르면 과연 最適의 翻譯은 훌륭한 成果를 거둔 것을 말한다.

18) 이것은 現代 翻譯版에서 “하아프 켜는 자의 노래”(沈明錫 역, 괴에테詩集, 서울, 文音社, 1968)로 翻譯되어 있다.

龍兒는 獨文學 專攻者로서 海外文學派의 一員이기도 하였는데, 이 流派가 指向하는 原文으로 부터의 直譯을 強하게 주장하고 實踐에 옮겼다. 뿐만 아니라 原文에 充實하면서 우리 나라 傳統이나 歷史, 文化的 背景 등을 考慮하여 적절히 翻譯함으로써 能力있는 翻譯者의 一面을 보여준 셈이다.

그런데 讀者들의 要求에 맞는 이처럼 많은 獨逸詩, 그 가운데에서도 괴테시 翻譯이 그 量面에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譯詩로서의 成果를 거둔 것이다.

그렇다면 1930년대 讀者들이 왜 특히 괴테의 詩, 하이네의 詩 같은 浪漫主義詩를 願하였는가? 그것은 우리 나라의 時代的 狀況으로 보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浪漫과 憧憬의 꿈 속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詩가 더욱 感動力이 있고 呼訴力있는 것이 될 수 있었다.

憧憬은 現在 狀態에서 벗어나려는 行動이며 時間的, 空間的 원거리로 비약하는 것이 그 指標이다. 本稿에서 考察의 對象이 된 作品들에 나타난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Oskar Walzel은 『獨逸浪漫主義』의 序頌에서 浪漫的 憧憬의 發端動機를 端的으로 다음과 같이 敘述하고 있다.

森林의 靜寂과 그 魅力, 春을 호르는 물레방앗간, 풀음, 獨逸 마을 밤의 고요함, 夜警의 고향소리와 걸친거리는 샘물소리, 廢墟가 된 城, 그곳의 大理石像이 티마달에 쫓겨 허물어지 가는 荒廢한 庭園, 崩壞된 城趾 등 모든 日常生活의 單調로움에서 逃避하려고 하는 憧憬心을 喚起하는 것은 모두가 浪漫的이다. 그러한 憧憬은 人間의 마음을 먼 곳으로 誘引함과 同時에 또한 우리 故國인 옛 獨逸의 風習과 藝術을 喚起시킨다.¹⁹⁾

結局 浪漫主義의 精神의 基調는 憧憬이라 하겠다. 獨逸은 近世史 初入期에 致命的인 挫折을 겪어 서구의 낙오자가 되었고 政治的, 地理的으로 폐쇄된 社會에서 外部情勢로 인하여 內面으로 充滿된 生命력을 使用할 길이 없어지자 彼岸의 世界, 高空으로 비약하여 假想的으로 먼 所有를 憧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獨逸의 浪漫主義는 비참한 정치사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浪漫主義는 이 世上의 苦患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 민족의 狀態가 不幸하면 할수록 그 민족은 浪漫的이며 哀傷의이다. 이러한 獨逸의 政治的 狀況은 곧 1930년대 우리 民族의 日帝治下에서의 狀況과 매우 비슷

19) 池明烈, 獨逸浪漫主義研究, 一志社, 1975, p. 23.

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浪漫的인 詩를 찾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930년대 讀者들에게 浪漫的인 獨逸詩는 매우 깊은 影響을 줄 수 있었고 더구나 原文에 充實하게 翻譯된 龍兒의 譯詩가 갖는 成果는 자못 큰 것이 아닐 수 없었다.

4. 結 論

以上の 論述을 通하여 文學作品 翻譯의 理論 및 그 實際의 例를 檢討해 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翻譯은 原文의 言語 즉 根源言語의 텍스트를 翻譯된 言語 즉 目標言語의 텍스트로 再現하는 作業이라고 한다면, 翻譯은 一次的으로 外國語 實力의 不足으로 原文을 읽을 수 없는 讀者들에게 便宜를 提供한다. 한 걸음 나아가서 文學作品이 言語와 國家의 境界를 超越하고 時空을 넘어 설 수 있는 것도 翻譯을 통해서며 이렇게 하여 世界文學의 連結關係도 파악된다.

翻譯이 可能한 것은 人間의 意思疏通을 可能하도록 하는 4가지 要因에 의해서이다.

文學作品 翻譯에서 問題視되는 것은 讀者에 대한 意味上的의 問題와 美學的인 價値에 대한 것이며 重視해야 할 것은 規範 즉 翻譯의 眞實성과 아름다움이다.

翻譯은 단어의 意味를 再現하는 것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原文이 주는 効果와 目的을 充足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좋은 翻譯을 하려면 影響問題, 雰圍氣面을 考慮해야 한다. 여기서 影響問題는 原文이 주는 効果와 翻譯이 주는 效果가 같으나에 달려 있다. 成果의 觀點에 따라 翻譯에 適用되는 規則이나 判斷基準 등이 決定되며, 言語 變容의 表面的인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困境에 빠지고 말게 되므로, 두 개의 言語로 이야기된 것의 成果를 比較했을 때 비로소 取扱할 수 있는 基準 내지 規範이 생긴다.

文學作品 翻譯의 可能性 여부에 대해서는 論亂이 심하나 대체로 文化的 背景에 의하여 規定된 意思疏通 關係에 比例한다고 할 수 있다.

文學的인 텍스트의 翻譯은 가령 詩의 表現을 例로 들더라도 翻譯할 수 없는 表現可能性의 制限이라는 問題가 생기는데, 이는 解說, 脚註 등의

補助手段을 통하여 어느 정도 止揚될 수 있으나 詩의 音聲, 리듬의 特性. 까지도 이것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하간 翻譯은 단순한 記號의 解讀이 아니므로 言語 外의 事實을 考慮해야만 翻譯은 가능하다.

文學作品 翻譯의 分析과 價值評價는 美學, 解釋學에 關係된다. 하나의 文學作品 翻譯을 分析, 評價하려면 우선 먼저 그 텍스트를 자신이 翻譯해 봐야 한다. 그리하여 根源言語로 된 텍스트의 精確한 의미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目標言語와의 차이점을 찾아 내고 그 質에 대하여 判斷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索引해 두고 原文과 比較하여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를 綜合해 본다. 다음에는 이 差異點에 대한 原因을 추적해야 한다. 그리고 一定한 讀者를 念頭에 두고 翻譯했는가 그리고 시간적 거리를 무시했느냐 하는 점도 檢討해야 한다.

龍兒의 譯詩 3篇을 통해서 보면 原文에 매우 充實하였고 詩에서 보통 問題視되는 形式의 翻譯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克服하고 있다. 물론 部分의인 誤譯이나 一貫性이 없는 表記가 보이기는 하나 그것은 枝葉的일 뿐이다. 특히 海外文學派의 한 사람으로 直譯을 強하게 주장한 龍兒는 原文에 充實히 翻譯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傳統, 歷史, 文化的 背景 등을 考慮하여 적절히 翻譯함으로써 能力있는 翻譯者의 一面을 보여준 셈이다.

1930년대 우리 나라의 讀者들은 時代的 苦惱와 政治的 不安 속에서 浪漫과 憧憬의 詩에 關心이 깊었던 터에 原文에 充實히 翻譯된 龍兒의 譯詩를 즐겨 읽은 것으로 判斷된다.

Fritz Güttinger가 천명한 바 훌륭한 成果를 거둔 것이 最適의 翻譯이라 할 때 龍兒는 成果있는 翻譯을 해 냈다고 할 수 있다. 主知하는 바와 같이 翻譯學理論은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活潑히 論議되었으므로 龍兒가 사실상 翻譯學理論에는 거의 無知의 狀態였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업적을 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參 考 文 獻

- Goethe, W. 池明錫 譯, 괴에테詩集, 文音社, 1968.
詩文學社, 朴龍喆全集Ⅱ, 東光堂書店, 1940.
池明烈, 獨逸浪漫主義研究, 一志社, 1975.
Albrecht, *Linguistik und Übersetzung*, Romanische Arbeitshefte 4, 1973.
Forster, L. *The Penguin book of German Verse*, Penguin Books Ltd., New York, 1978.
Güttinger, F., *Zielsprache*, Theorie und Technik des Übersetzens, Manese, Zürich, 1963.
Koller, W,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Quelle & Meyer, Heidelberg, 1979.
Koppen, E.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um, Wiesbaden, 1981.
Nida, E.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1964.